

4·15 총선을 뛰는 사람들



손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총선 출마 선언

“정치개혁·중단 없는 발전, 재선 의원 힘 보여드릴 것”

나주·화순 손금주 국회의원이 21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5일(수), 4·15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나주시·화순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손금주 의원은 출마선언을 통해 “지난 4년 간 나주·화순은 에너지·백신 산업,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혁신적인 발전을 진행해 왔다. 국가적인 대규모 사업을 확실히 완성할 사람, 더 큰 발전으로 계

속 뛰는 나주·화순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여당 재선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인 손금주 뿐”이라며, “우리 나주·화순에도 힘 있는 중진 의원이 필요하다. 다음세대를 생각하며 먼 미래를 바라보고, 깨끗하고 젊은 정치를 통해 나주·화순을 변화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지난 4년 간 ▲국비 1조 3,744.54억 원 확보 ▲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1,389.8억 원 선정 ▲SRF 발전소 시험가동 및 정기검사 중단 관철 ▲나주 에너지융복합지구 및 규제자유특구 선정 ▲한전공대 유치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 센터·산업용 고압 직류 기기 성능시험 기반 구축·VRAR 제작지원센터

설치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백신글로벌사업화 기반구축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전남대 병원 교육복합동 및 주차장 건립 등의 많은 성과를 냈지만 계획대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유지한 사람’에 의한 ‘중단 없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나주 SRF발전소의 LNG 전환 추진, 한전공대 2022년 정상개교, 혁신도시 시즌2 유치, 나주 에너지 밸리 및 화순 생명공학·백신 산업의 중심지 완성, 경전선 및 광주지하철 2호선 연장 등 나주·화순에 꼭 필요한 현안을 해결하고,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

“혁신도시 악취 잡겠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해 악취 민원 없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지난달 28일 광주가톨릭 평화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혁신도시조성 초기부터 최

대 현안이었던 악취가 호혜원 축산농가 폐업 조치에도 불구하고 악취 배출원이 늘어나고 민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축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악취문제는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왕곡·공산면 등 나주시 전 지역의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최대 현안으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특별법’에 악취개선

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의무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부와 축산환경관리원, 환경부 등을 비롯한 관련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악취저감 TF팀을 구성해 맞춤형 악취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악취저감 시설 설치와 폐업보상에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해 악취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혁신도시 시즌2는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유치만이 아니라 정주 여건을 완벽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와 전남도, 나주시와 함께 다각적인 정주 여건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원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나주 유치 최선”

김병원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나주시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전력반도체, 신소재 등 첨단에너지 신산업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전공대와 연계한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구축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나주시와 함께 숙원사업이 반드시 유치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호남지역은 가속기 연구시설이 전무한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첨단연구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점도 유치 필요성으로 제기했다.

방사광가속기는 태양빛보다 100억 배 이상 밝고 파장이 짧은 초고속 빛으로 물질의 미세구조와 현상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최첨단 대형 연구시설이다. 의학, 전기, 미래청정에너지, 소재부품장비, 전자 등 거의 모든 과학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 가능하다.

1조원 대 규모로 알려진 유치전에는 현재 나주시

를 포함 경기도, 충북 오창, 인천 송도, 강원 춘천시 등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나주 유치로 인한 기대 효과로 △구축기간 유입인력 연간 1,000명 이상 △운영 기간 박사급 상주 인력 연간 300~500명 △운영 기간 유입 이용자 연간 5000~1만 명 △국비 지원 연간 운영비 750~1500여억 원 △20년 이내 경제 발전기여 10조원 이상 추정 등과 함께 9000여 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김 예비후보는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는 나주가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나주시와 손잡고 광주와 전남북을 아우르는 호남권 첨단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백다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목표달성 미미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채용에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백다레 예비후보는 이전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방소멸과 국가불균형발전 해

소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후보는 빛가람혁신도시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도 2019년도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13.8%에 그쳤으며 이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21%에 훨씬 미치지 못한 저조한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년에도 전체 채용 목표인 1500명 중 지역인재 채용은 200여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 후보는 공공기관들의 입장에서도 지역인재 채용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지 않은 애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더 많은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청년인재들의 유출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다소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쪽으로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재부와 국회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인재채용 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반영 점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